

# 역대상 · 하 1 & 2 Chronicles



## 1. 역대기 서론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두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두루마리 책의 길이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지만, 원래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쓰여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순서도, 영어/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다음에 배치되었고, 내용 역시 그 두 책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현대 독자들은 역대기를 읽을 때 "잠깐, 다 읽었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고 건너뛰지만,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전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실제로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이 유대인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이고, 이야기의 첫 등장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책의 자세한 묘사로부터 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 포로에서 돌아온 후 약 200년 뒤의 사람이란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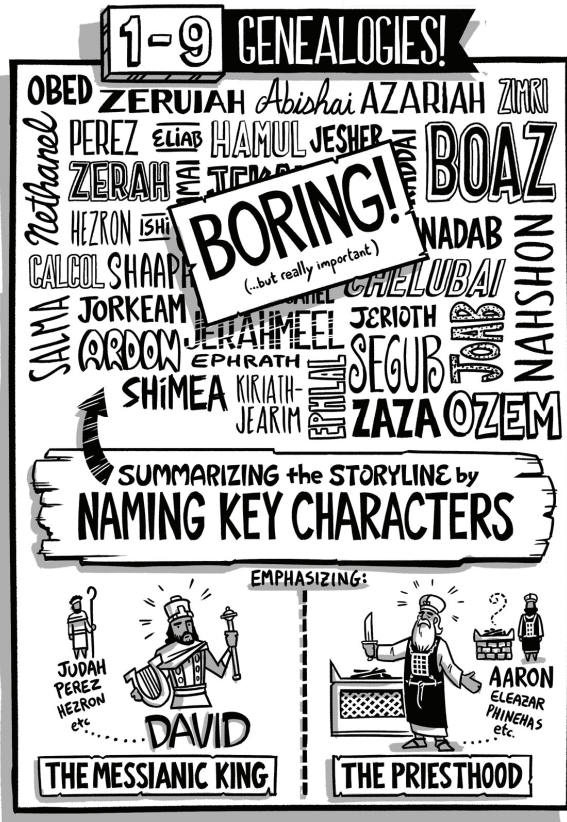
얼마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고, 이미 배운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예언되었던 대망, 즉 성과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메시아적 왕이 오심으로 모든 열방이 그의 평화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야기와 과거의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이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첫째는 곧 오실 메시아적인 왕에 대한 소망이요,
- 둘째는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주제가 책 전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 봅시다.



## 2. 역대기의 족보 이해 (대상 1-9장)

역대상은 첫 9장에 걸쳐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는데, 우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사실이긴 하나,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는 중 인물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약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만들면서, 특히 두 계보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약속된 메시아적 왕의

계보입니다. 이 책의 많은 분량이 다윗 왕에 이르는 유다 혈통을 추적하는 데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윗부터 그의 시대까지의 혈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보로,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후손들로,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책의 처음부터 바로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이, 이 오래된 두 계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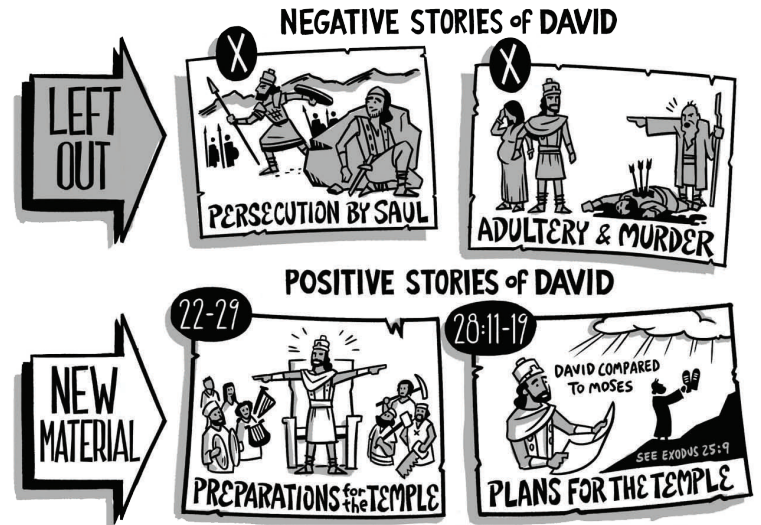
## 3. 다윗 왕의 이야기(역대상 10-29장)

이제,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 익숙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다윗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 즉 다윗이 연약하거나 부도덕하게 비쳐지는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다윗을 쫓으며 박해하는 사울의 이야기나, 다윗의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이야기는 모두 사라지고, 다윗은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기록됩니다. 다윗을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몇 장에 걸쳐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대상 22-29장). 다윗은 여러 재료와 석수장이들을 준비하고 레위인과 노래부르는 자들을 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자는 다윗을 모세 같은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대상 28:11-19).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럼 왜 다윗에 대해 새 자료들이 추가되었을까요? 저자가 다윗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결점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저자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 즉 다윗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로 혹은 전형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Q: WHY THIS NEW MATERIAL?**

GOD'S COVENANT PROMISE  
(COMPARE TO 2 SAMUEL 7)

17

DAVID SOLOMON

"A NEW DAVID"

**A: TO PORTRAY DAVID AS AN IMAGE OF THE FUTURE MESSIANIC KING.**

**1-36 KINGS IN JERUSALEM**

**LEFT OUT**

**NEW MATERIAL**

**KINGS OF NORTHERN ISRAEL**

**CHARACTER STUDIES**  
SO LATER GENERATIONS WILL LEARN TO BECOME FAITHFUL TO GOD & THE TORAH.

**OBEDIENT KINGS**  
SUCCESS & BLESSING

**UNFAITHFUL KINGS**  
FAILURE & HARDSHIP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새 다윗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해지는 때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저자가 다시 말할 때입니다 (대상 17).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 보면, 역대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다윗도 솔로몬도 또한 다윗 가문에서 나온 어떤 왕도 메시아적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다윗 왕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속시켜주는 것입니다.

**4. 다윗 왕가의 이야기**

다윗이 죽은 후는,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와 많이 중복되지만, 또한 중요하게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생략하고, 다윗 가문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다윗

계열의 왕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추가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면서,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성공적으로 임했던 이야기들을 추가합니다.

저자는 또한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기에 이러한 왕들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전체가 일련의 인물 연구가 되는데, 저자는 이스라엘 후대가 가문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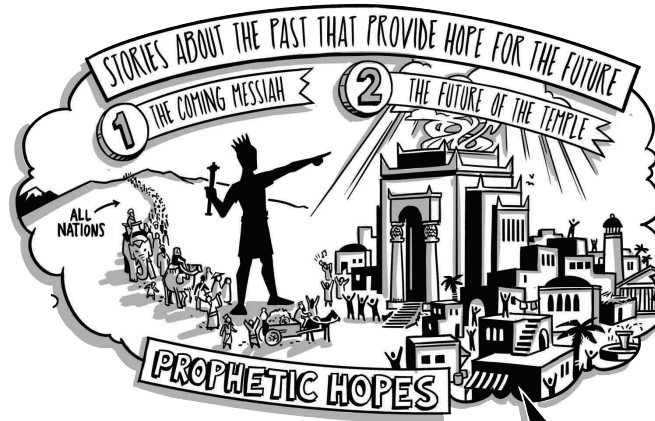
**5. 역대기의 결론**

이 책의 결말도 정말 독특합니다.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포로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시와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6:23).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누구에게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올라가게 하사..." (NRSV 번역). 이 책은 이처럼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물론 저자는 이스라엘의 첫 귀환에 대해 알고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소망은 그 두 사람들의 때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완성의 결말이 시사하는 바는, 저자가 또 다른 포로에서의 귀환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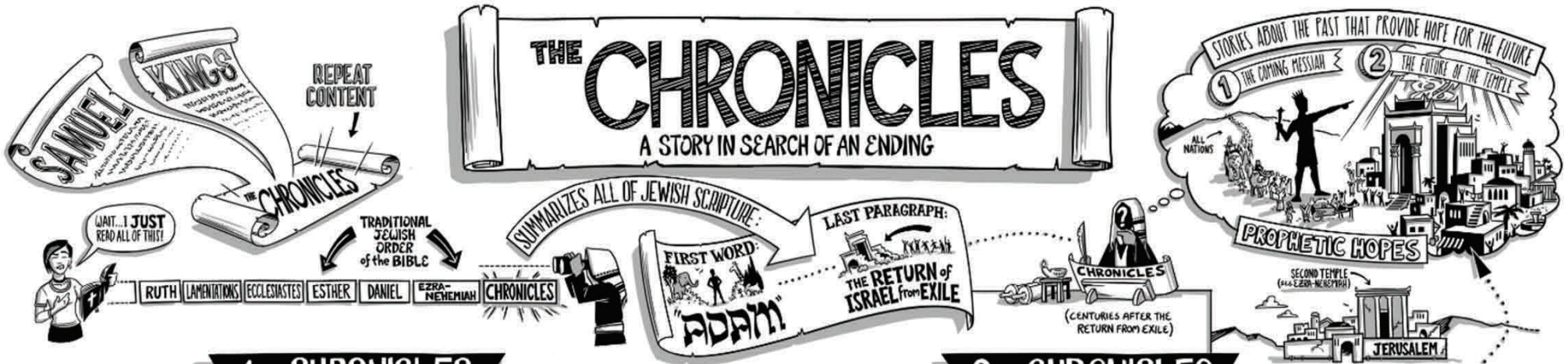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역대기는 유대인의 마지막 성경으로 미래를 향하는 것으로 책이 끝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도록 권면합니다. 그들의 과거가 미래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구약의 결론으로, (약속의) 결말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 한글 성경에는 원문 구절의 순서를 바꿔서 뜻이 맞도록 번역해 놓았으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책의 말미가 ‘... 그가 올라갔다/올라가서...’와 같은 식으로 끝난다.





### 1st CHRONICLES

**1-9 GENEALOGIES!**

OBED ZERUIAH Abishai AZARIAH ZIMM  
PEREZ ELIAB HAMUL JESHER BOAZ  
ZERAH ELIENAI  
HEZRON ISHAI  
CALCUL SHAPA  
JORKEAM  
SARVA  
ARDON JERAMEEL JERIOTH  
SHIMEA KISHIATH-JEARIM  
WADAB  
GRELUBAI  
NAHSHON  
ZAZA OZEM

**BORING!** (but really important)

SUMMARIZING the STORYLINE by NAMING KEY CHARACTERS

EMPHASIZING!

DAVID THE MESSIANIC KING

AARON ELIENAI PHINEHAS ETC.

THE PRIESTHOOD

**10-29 STORIES ABOUT DAVID**

NEGATIVE STORIES of DAVID

PERSECUTION BY SAUL

ADULTERY & MURDER

POSITIVE STORIES of DAVID

22-29 PREPARATIONS for the TEMPLE

23-29 PLANS for the TEMPLE

WHY THIS NEW MATERIAL?

GOD'S COVENANT PROMISE (COMPARE TO 2 SAMUEL 7)

DAVID SOLUTION

"NEW DAVID"

LEFT OUT

NEW MATERIAL

A: TO PORTRAY DAVID AS AN IMAGE OF THE FUTURE MESSIANIC KING.

### 2nd CHRONICLES

**1-36 KINGS IN JERUSALEM**

KINGS OF NORTHERN ISRAEL

CHARACTER STUDIES: SO LATER GENERATIONS WILL LEARN TO BECOME FAITHFUL TO GOD & THE TORAH!

OBEDIENT KINGS

SUCCESS & BLESSING

UNFAITHFUL KINGS

FAILURE & HARDSHIP

THE END?

INCOMPLETE sentence!

CYRUS

WHOEVER THERE IS AMONG YOU OF ALL HIS PEOPLE, MAY THE LORD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36:23)

LEFT OUT

NEW MATERIAL

created by the Bible Project